

## ‘도파라치’가 뜬다

불법 도박 신고 시행 한 달

전남청 30건 150만원 지급

사행성 오락 게임장, PC방 등 불법 도박 관련 신고를 하면 포상하는 이른바 ‘도(賭) 파라치’가 뜨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30건에 달했다. ‘도파라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신고 보상금이 최고 5천만원이나 되기 때문. 간접 신고의 포상금은 1억원이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는 심의를 거쳐 이중 6건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도파라치’는 조직폭력배가 게임됐거나 500개 이상의 체인점을 두고 있는 분사 등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이 최고 5천만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전남청에 접수된 포상금 지급된 경우는 모두 불법 영업장에 대한 것이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뒤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의 기준은 ▲신고자의 정확한 실명 ▲불법 오락실의 정확한 장소 ▲신고 영업장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이다.

경찰은 아직까지 보상금 내용과 증거 정도 등을 묻는 ‘문의’가 많지만,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돈을 잃고 화가 나는 신고 ▲등급 분류대로 합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장에 대해서도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에는 일반 오피스텔 및 원룸 등에 PC를 설치해 놓고 특정 손님에게만 은밀히 불법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노린 무의미한 신고가 많아 보상금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 총장로 ‘현대코아’ 금은방 3곳

1억5천만원 상당 귀금속 털러

지난달 31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총장로 4가 ‘현대코아’ 1층 금은방 3곳에서 1억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한꺼번에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들은 이 건물 1층 셔터 문의 자동개폐장치를 절단기로 부순 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인터넷 채팅 중 시비 “만나서 싸우자”

# 광주서도 ‘현피’ 패싸움

(現P)

소폭·고교생 결투 3명 부상...광주·전남 첫 사건화

광주·전남에도 ‘현피(現P) 패싸움’이 벌어졌다. 인터넷에서 시비를 벌이다 실제로 만나 싸우는 속칭 ‘현피’를 하던 고등학교생이 조직폭력배 등에게 폭행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지역에서 처음 사건화된 ‘현피’는 그릇된 온라인 문화의 단면으로,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현피’를 부추기며 싸움 현장에 응원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새벽 2시 광주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2명과 인터넷 포털 ‘버디버디’(Buddy Buddy)에서 채팅을 하던 이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 이 군 등은 우연히 김모(20)씨의 채팅방에 접속했다가 김씨가 동구 게임방 O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군 등은 장난삼아 “O모텔은 후진 곳”이라며 김씨

를 약 올렸고, 시비 끝에 게임방 이마트 앞에서 만나 ‘결투’를 벌이기로 했다.

한 시간 뒤 이 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약속장소로 나갔다. 상대편 김씨 일행은 2명이었다. 숫자가 많은 것을 믿은 이 군 등은 김씨 일행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김씨의 선배인 박모(21·폭력 등 전과 7범)씨와 문모(21)씨가 현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바뀌었다.

‘총장 OB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씨 등은 이 군 일행을 검주며 폭행했고, 이 군은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전남대병원에서 코뼈 등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은 이 군은 지난달 31일 수술을 했다.

이 군 등은 조직폭력배 박씨가 무서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접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사실을 털어냈다.

### 현실의 ‘현’과 PK의 ‘P’ 합성어

▲현피=현실의 앞글자인 ‘현’(現)과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게이머(gamer)의 캐릭터를 살해하는 ‘피케이’(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피’(P)의 합성어.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을 직접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가리켰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돼 온라인 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결투를 신청, 실제로 만나 다투는 행위 전체를 포괄한다. 지난 8월 서울에서 맨 처음 사건화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박씨와 문씨를 불잡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목포 도심서 패싸움

흥기 찢려 1명 숨져

목포경찰청은 도심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이다 흥기 상대방을 찢러 숨지게 한 정모(21·목포시 대반동)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3시20분께 목포시 상동 ‘장미의 거리’ 인근에서 김모(21·목포 D동사무소 상

근 예비역)씨 등 상근예비역 4명과 싸움을 벌이다 김씨를 흉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김씨 일행이 욕설을 한데 격분, 6대 4로 패싸움을 벌이던 중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자 인근 횡집에서 흥기를 가져와 김씨의 복부를 찢른 것으로 드러났다.

흥기에 찢린 김씨는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에 숨졌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무등산 야생 노루 피하다

승합차 10m 절벽서 추락

### 운전자 중상

한밤중 무등산 인근 도로를 지나던 승합차가 갑자기 나타난 야생노루를 피하려다 절벽에서 추락,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31일 새벽 0시10분께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도로에서 ‘08서 91XX’호(운전자 문모·25) 소년승합차가 10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문씨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승합차는 추락 직후 화재로 전소돼 2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앞쪽에 노루가 나타나니 바람에 운전대를 급히 틀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무등산에서 1km 떨어진 편도 1차선 도로로 야생동물이 종종 출현, 교통사고 위험이 커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주요 도로에서는 너구리·족제비 등 26종 372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어 죽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고구마 수확 현장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고구마 수확에 한창이다. 이곳 고구마는 1kg당 1천400원(도매 가격)에 광주 등 대도시로 출하되고 있다. /영암=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나원침 (6964) 김중두



법정 자동차의 품질특성만 높이는 3.6% 최대단감!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 062-367-9000

### 머리 둘 달린 뱀 ‘쌍두사’ 발견

○국내에서 머리 둘 달린 뱀이 발견돼 화제.

○지난달 31일 제과업체 ‘기린’의 수원 공장 증축 현장 화단에서 길이 19cm에 손가락 굵기인 ‘쌍두사’가 발견돼 공장 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것.



○‘기린’측은 “이달 중순 준공을 앞둔 수원 공장장에서 태어난 확률이 10만분의 1 수준으로 희귀한 쌍두사가 나타난 것이 사업확장이 순조로울 것을 알리는 길조인 듯하다”고 희백.

/연합뉴스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용역제공에 선도적 기업’**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입 및 경력직(설계·감리모집)**

1. 1차 서류심사: 11월 15일(수) 오후 5시  
 2. 2차 면접: 11월 22일(수) 오후 2시  
 3. 3차 면접: 11월 29일(수) 오후 2시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퍼시스의 축적된 노하우로 만든 첨단 메카니즘의 전시리즈

JOY, REPLY

FURSYS 퍼시스남광주전시장 (062)225-5100